

- 주요 뉴스: 7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들은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
 - 미국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상황에 만족. 연준 월터 이사는 금융 신기술 강조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8개월 만에 최고치. 금리인하 기대 약화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 동결. 국무원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7월 FOMC 의사록, 증시에서의 기술주 우려 지속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버블 가능성에 의한 기술주 매도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소비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의 연준 쿼터 이사 사임 촉구 반영되며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년물 입찰에서의 양호한 수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95.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7.8원, 0.04% 하락). 한국 CDS 하락

		8/20일	8/19일	전일대비			8/20일	8/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95.8	6,411.4	-0.24%	국채 금리 10y	미국	4.29%	4.31%	-2bp
	유럽	559.09	557.81	+0.23%		독일	2.72%	2.75%	-3bp
	중국	3,766.2	3,727.3	+1.04%		영국	4.67%	4.74%	-7bp
	일본	42,889	43,546	-1.51%	CDS 5y	한국	20bp	21bp	-1bp
	한국	3,130.1	3,151.6	-0.68%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24	98.27	-0.02%	위험 지표	EMBI+	-	334	-
	유로화	1.1652	1.1647	+0.04%		VIX	15.69	15.57	+0.77%
	엔화	147.33	147.67	+0.23%		WTI유	63.21	62.35	+1.38%
	위안화	7.1758	7.1824	+0.09%	원자재	구리	444.0	442.3	+0.40%
	원화	1,398.4	1,390.9	-0.54%		금	3,348.4	3,315.8	+0.9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7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들은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

-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를 우려했지만, 이 가운데 다수의 위원들은 더 큰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지목. 당시 FOMC의 성명서 역시 노동시장은 대체로 견고하다고 평가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
- 다만 당시 연준의 월러 이사와 보우먼 부의장은 노동시장 악화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실제로 금리동결 결정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
- 또한 위원들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보다 장기기간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구체적으로 다수의 위원들은 관세 영향이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 아울러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
- 다만 7월 FOMC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 5~7월의 고용이 시장 기대보다 크게 부진. 동시에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금리인하 전망은 다소 후퇴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쿡 이사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면서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금리인하 기대 높아지며 달러화는 약세. 쿡 이사는 유리한 대출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 위조 가능성이 제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상황에 만족. 연준 월러 이사는 금융 신기술 강조

- 베센트 장관은 현재 중국과의 관세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를 트럼프 정권이 對中 관계 안정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또한 지금까지 중국과 매우 원활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연준의 월러 이사는 AI, 스테이블코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 특히 금융의 탈중앙화가 결제에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

■ 유명 투자자 하워드 막스, 미국 증시는 버블의 초입 단계. 방어적 대응 필요

- 오크트리캐피털매니지먼트의 하워드 막스는 미국 증시가 버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투자자는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 특히 투자자들은 장기간 주가 조정을 맞았으며, 주가의 평균 회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EU,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 논의.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 견제

-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24시간 이내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 여부 결정 의무화 방안을 협의. 다만,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움직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

■ ECB 라가르드 총재, 3/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

- 역내 경제 성장은 3/4분기에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 또한 미국의 對유럽 15% 관세는 당초 상정한 수준을 소폭 상회하지만, 심각한 시나리오와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8개월 만에 최고치. 금리인하 기대 약화

-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8% 올라 전월(3.6%) 및 예상치(3.7%) 대비 높은 수준. 이는 1년 반 만의 최고치이며, 특히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이 강화.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었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 동결. 국무원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LPR)를 현 수준(각각 3.00%, 3.50%)에서 동결한다고 발표. 이는 5월의 인하 효과를 좀 더 살펴보는 판단에 기인. 한편, 국무원은 전세계적인 위안화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용 방안을 논의할 방침.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은 수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 미국 8월 S&P 글로벌 종합 PMI
- 미국 8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유로존 8월 HCOB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투자자, '재정 우위의 새로운 시대' 도래를 경고 - Financial Times

(Investors warn of 'new era of fiscal dominance' in global markets)

- OECD 회원국의 부채는 올해 17조달러로 사상 최대.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정부 부채 부담 증가, 차입 비용 상승과 관련된 시장 압박과 정치적 압력에 직면.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 이는 '재정 우위의 새로운 시대'로 불리며(Harvard U.),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아울러, 관련 영향으로 경제 전망 개선에도 선물시장은 내년 말까지 5차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 또한,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위한 양적완화 축소 노력은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난항에 직면. 이는 정부가 이자비용 충당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과 이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소지

■ 연준의 통화정책,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앞에서 신중한 관망이 적절 - Financial Times

(How the Fed should deal with US stagflation risks)

- 미국 경제는 고용 둔화와 물가 압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고용과 민간소비 부진을 근거로 9월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성장을 낙관. 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관세와 이민 억제 등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
- 만일 시장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연준은 실업률 상승 시 금리인하 가능. 행정부의 기대처럼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중립금리가 상승하기에 성급한 금리인하 필요성이 감소. 그러나 정책 실패 시각이 옳다면 조기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 따라서 트럼프 정책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관망이 최선

■ 중국 채권, 高수익 기대 등으로 가격 하락 압력 악화될 전망 - 블룸버그

(China's Bond Rout Seen Fading as Higher Yields Draw in Bu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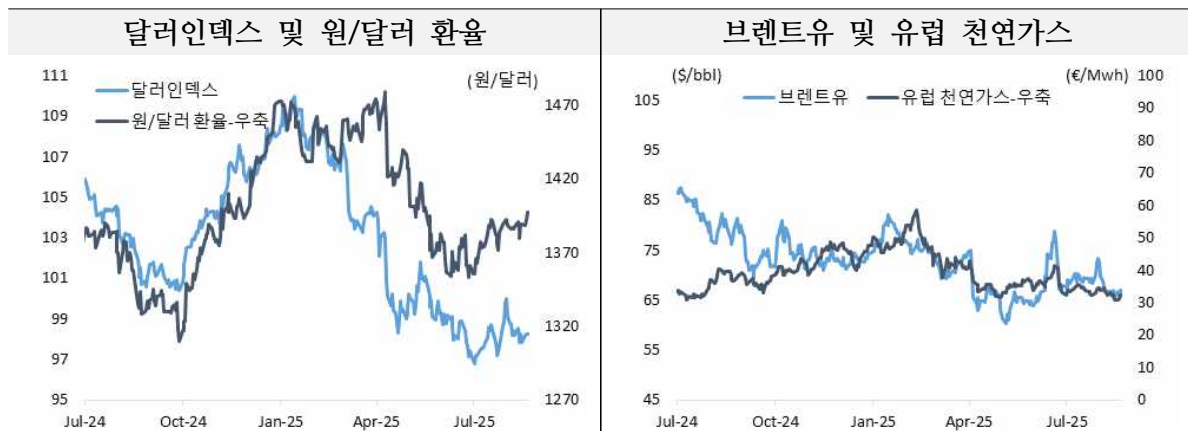
- 중국 국채는 對美 무역휴전 기대, 정부의 디플레이션 억제 노력 등으로 7월 한 달 간 가격이 하락. 아울러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자제와 채권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재부와 가능성 등은 채권 매입에 제한. 이에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매력적 수준까지 상승(ANZB)
- 한편, '21년래 최저 수준인 주식(상해종합지수) 대비 국채(10년물)의 상대 가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유입(PBOC), 자산운용사의 위험 회피 움직임, 기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긍정적 상황 등은 채권 가격 하락이 일단락되는 징후로 해석. 하지만, 인민은행 금리인하 지연은 채권시장에 부담 요인

- **주요국 중앙은행, 잭슨홀 회의에서 독립성 유지 등 공통과제 해법 마련 필요** - Financial Times
(What central bankers must tackle at Jackson Hole)
 - 금년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해결 과제에 직면. 연준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 가중, ECB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목표치(연율 2%) 장기간 하회 우려, 영란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정책 측면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
 -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공통과제에도 직면했음을 인지하고 해결책 논의가 필요.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독립성 확보. 둘째,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지표 통계의 신뢰성 유지. 셋째, 국가 개입주의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 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식기반 및 도구 마련
- **연준, 주택경기 활성화 vs. AI發 인플레이션 심화의 딜레마에 직면** - Reuters
(Fed's dilemma between AI and housing)
- **채권 투자자, 잭슨홀 회의 파월 연설을 앞두고 빅컷(0.5%p 금리인하) 기대 증가** - 블룸버그
(Bond Traders Are Raising the Stakes Before Powell's Speech)
- **미국 주택시장 위기 극복, 공급부족 해결 법안 승인 등 의회 역할이 중요** - 블룸버그
(America's Housing Crisis Is a Job for Congress)
- **미국의 AI 패권, 디지털 식민주의에 맞설 국제 규범·협력 필요** - Financial Times
(Beware America's AI colonialism)
- **미국 트럼프의 모호함, 유럽 안전 보장에 의구심을 부여** - Financial Times
(Trump's ambiguity is the worst of all worlds)
- **국제유가 선물의 '스마일 커브' 움직임, 향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 Reuters
(Oil price smile could leave traders in tea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